

## 한국사회정책 편집인의 글

한국사회정책 제30권 제2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호에는 총 다섯 편의 연구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별 국민연금 가입 특성 분석: 사업장가입자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문현경·류재린)은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국민연금 DB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했습니다. ‘관리 가능성’과 ‘보호 필요성’이라는 두 지표로 사업장가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국민연금 가입 특성을 비교하여, 비전형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포섭을 목표로 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의 발전 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산재 화상 의료보장성 정책의 성과분석”(김경하)는 산재 화상시범수가 도입을 통한 산재 화상 의료보장성 정책의 성과를 근로복지공단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산재 화상시범수가 이용이 직업복귀율과 원직복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산재화상 환자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드문 가운데, 행정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향후 화상 환자의 치료 지원을 위한 산재보험 급여체계 및 기준에 관한 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드코로나19에 대응하는 교육복지 요구분석”(김민희·이윤수·이지혜·송지훈·명준희·유명현)은 코로나19 팬데믹 시에 겪었던 교육과 돌봄의 혼란 속에 제기되었던 교육복지 요구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하여 분석했습니다. 교육과 돌봄의 사각지대와 이에 대응한 지원 체계에 관한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유사한 위기 발생 시 필요한 대응을 마련하는 데 유의한 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다.

“한부모에게 지급된 준보편적인 현금급여 20만원의 의미와 정책학습: 공공부조 경험과 대비하여”(정이윤 전미양)은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에 제공되었던 민간급여 20만원을 수령한 한부모 11명을 대상으로 급여의 사용과 의미를 파악했습니다. 엄격한 자격기준과 보충급여 성격을 띠는 기존의 공공부조 급여 수급 경험과 비교하면 준보편적인 현금급여 수급의 경험을 사회적

인정과 격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금 급여 정책의 자격 요건과 기준 등 성격에 따라 수혜자의 경험과 해석이 달라지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흥미로운 논문입니다.

“청년의 사회적 불안 인식 격차: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생애 경험을 중심으로”(변금선·이혜림)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실태조사 자료를 가지고 19~34세 청년층의 사회적 불안 인식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했습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이들의 불안 인식 확률이 높았는데, 청년층의 불안이 세대를 거친 사회구조적 불평등에 기인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번 호는 한 편의 서평을 실었습니다.

박종식 부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은 권동희(2023), 『산재를 말하다』를 논평해 주셨습니다. 이 책은 산재 사건 전문 공인노무사이자 산재 사고의 유가족이기도 한 저자가 노동자 입장에서 산재 사건 대응을 지원하고 정책 개선을 위해 고군분투해온 여정을 담았습니다. 12년에 걸쳐 「매일노동뉴스」에 기고한 글들을 통해 산재를 둘러싼 사회적 공방과 양측의 진화하는 입장을 성실하게 기록하고 있어 한국의 산재보험 제도의 구체적인 전개과정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국사회정책 제30권 제2호에 실린 논문과 서평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023. 6. 30

편집위원장 윤자영, 백학영